

블랑팡과 부케러,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부케러 블루 에디션을 선보이다

블랑팡은 부케러(Bucherer)와 협업해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부케러 블루 에디션(Fifty Fathoms Bathyscaphe Bucherer BLUE EDITIONS)을 소개한다. 부티크와 루체른에 본사를 둔 리테일 체인 웹사이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특별한 모델이 블루를 테마로 한 캡슐 컬렉션에 새롭게 합류한다.

블랑팡과 부케러는 창립 이래 전문성을 강조하고 탁월함을 추구해왔다는 공통점 이외에 블루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다. 부케러를 상징하는 컬러이기도 한 블루는 해양 세계를 향한 블랑팡의 열정을 상기시킨다. 1953년 피프티 패덤즈라는 이름의 최초의 모던 다이빙 위치를 선보인 블랑팡의 열정 말이다. 바다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탄생한 이 전문 장비와 더불어 블랑팡은 바티스카프 모델을 개발했고, 이는 1956년 물 속이나 땅 위 어떤 상황에서든 착용할 수 있는 민간인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되어주었다. 2013년 블랑팡은 바티스카프를 재해석하고 이후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하며 더욱 풍성한 라인업을 선보였다. 이번에 소개하는 부케러 블루 에디션을 위해 제작한 오리지널 버전의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기능도 그 중 하나다.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부케러 블루 에디션은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칼리버 F385에 의해 구동된다. 기능과 완벽하게 부합하도록 5Hz로 진동하며 1/10초 간격까지 정확히 측정한다. 고진동은 또한 높은 정확성을 보장한다. 칼리버 F385는 수직 클러치를 갖추고 있어 수평 클러치를 탑재한 메커니즘과 달리 크로노그래프를 부드럽게 작동시키며, 멈추지 않고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 F385는 하이엔드 크로노그래프에서 주로 채택하는 컬럼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특히 타이밍 기능을 시작하고 멈출 때 손에 부드러운 터치감을 선사한다. 플라이백 기능 덕분에 4시 방향의 푸셔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즉시 제로 리셋과 재시작이 가능하다. 이 장비는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무언가의 측정을 연달아 해야 할 경우 매우 유용하다. 시계 케이스는 300m 방수 가능하며, 다이빙 중에도 무브먼트가 망가질 염려 없이 크로노그래프 푸셔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빛을 내는 인디케이션을 놓은 어두운 컬러 다이얼, 마킹을 갖춘 단방향 로테이팅 베젤, 이제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통해 가능하게 한 자성으로부터의 보호 등 다이빙 워치로서의 피프티 패덤즈의 명성을 빠르게 확립시킨 표준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미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피프티 패덤즈 부케러 블루 에디션은 풍성한 블루 컬러를 뽐내고 있다. 브러싱 처리한 블루 세라믹 소재의 43mm 사이즈 케이스는 극도로 가볍고 견고하며, 이 동일한 소재를 로테이팅 베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하늘빛 다이얼은 슈퍼-루미노바® 코팅한 아워마커가 돋보이는 새틴 브러싱 처리한 챗터 링을 갖추고 있으며, 선버스트 장식한 중심부와 스네일드 장식한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간의 섬세한 대비를 보여준다.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들여다보이는 뒷부분에서는 표면을 스네일드 처리하고 가장자리를 베벨링한 브리지를 감상할 수 있다. 블루 코팅한 18K 골드 로터에는 두 하이엔드 스위스 메종이 믿음으로 연결되었음을 의미하는 징표로서 블랑팡과 부케러 로고를 인그레이빙해 새겨 넣었다.